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消費의 規正
物價問題解決의 先決條件

一

戰時에있어서는 國民生活에 一大變革을 招致케하는것으로 最低限度의 生活에 滿足치아니할수업게된다. 即平時에있어서는 貧富의差가 懸隔하야 生活上에 나타나서 마음대로 쓰고먹고사는것이 名譽이오 社會의尊敬도 바더왓스나 戰時에잇서서는 그러한 自由主義的思想은 容許되지안코 너나할것업시 國家의目的을 爲하야 生活의統制를 밧게된다. 國民生活의安定上 生活必需品의 最低限度確保와 作戰遂行에 必要한 重要物資의 確保上 國民의消費를 徹底的으로 規正함이 刻下의 最大緊急事로되어잇다. 物價對策審議會에서는 物價公定의 基準을 決定함에 잇서 消費規正, 購買力吸收等의 問題를 分離하야 생각할수업서 消費規正을 重大取扱케되엇고 商相도 이에對하야 地方長官會議에서 地方長官의 實情에 即한 意見을 聽取한後 그適切한對策을 세우고저하는等 消費規正을 急速히 具體化할것으로 보이며 日前에 開催되엇든 道知事會議에서도 朝鮮서의 消費規正을 一層强化키로 되어잇다.

二

그러나 이消費規正은 結局에잇서 傳票制를 意味케 되는데 지금까지 部分的, 地方的으로 實施해오것도 傳票는잇스나 物件이업는等 問題가 이러나기쉬웁고 物資에依하여 規正을달리하는것도 만흠으로 全國的으로 모든商品에 亘하여 劃一的施行은 從來의 配給機構와의 關聯에잇서 摩擦이생기기쉬울것이다. 또 消費地와 都市와 農村에 따러서 實情에 맛지안는 結果도되어 目的과 相反되는 事態를 招致할 憂慮가 不無하므로 消費의規正은 그具體的强化에잇서 만흔困難이 伏在해잇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三

그러타고 實行上 困難을가지고 消費規正의强化를 遲延할수업는것이오 商相의 應急策과가치 地方的消費規正으로서 局部的으로 成功하고잇는것을 逐次斷行하여가면서 中央의 統一的 消費規正對策을 講究하여 改組된 物動과 合하야서 實施의 效果를 내게키에 努力해야 할일이다. 勿論 生活必需品에잇서서는 最低限度의 需要에 應할만한 物資가잇도록하는것을 前提로하고 또그物資를 가장圓滑하게 配給할組織이 必要함은 다시말할것도 업는일인만큼 生活必需品의 傳票制實施에는 그所要量의 確保와 配給機構의 整備를 圖하여야만 할것이오 이리하여야만 物價問題 解決의 先決條件이 될것이다. 統制를 밧는 民에잇서서도 消費規正은 勿論苦痛이거니와 이리하여야만 最低限度의 生活이 保障된다는것을 깨닷게되면 戰時下 이것을 반드시 苦痛으로 알게되지안흘것이오 自進하여 消費規正實施에 協力케될것을 밋는다.

四

消費規定實施에잇서 가장 重大한 事이 또하나잇스니 그것은 도모지 奢侈의 贅澤生活 乃至 享樂生活이 一般國民에게주는 惡影響이 그것이다. 前線兵士와 가튼 마음으로 가난하고 구차한 살림을하여 生活必需品求得에도 애를 쓰는 한便으로 遊興, 享樂方面은 平時보다도 더욱 殷盛하는것을 볼때 精神上으로도 害를 줄이는뿐아니라 그들의 消費하는 物資가 만흔事를 볼때 寒心한일이라아니할수업다. 遊興、

地方長官會議今日召集

【東京電話同盟】事變勃發第四年 더욱加重되는 內外情勢를 압두고 政府施政策의 徹底를 期할 全國地方長官會議는 마침내 今一日로써 招集되어 이미 三十日中에 上京한 北海道長官을 爲始 全國各府縣知事와 一日中에 全員上京될터도 外地에서 出席하는 忠淸北道, 全羅南道, 慶尙南道, 新竹州의 外地長官을 合하여 全國地方長官中 一人도 事故者업시 出席豫定인바 一日午前八時半 首相官邸에 參集, 法相의訓示後 午前十時 一齊히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地方事情奏上, 御下問에 奉答한後 三日의 閣僚와의 懇談會 四日부터 各省所管事項에 關하여 具體的討議를 豫定인데 會議는 十日까지 日曜를 除한 八日間 繼續될터이다

生活必需品傳票制、全國的實施策講究
物價對策懇談會서協議

【東京電話同盟】物價對策審議會 第七回懇談會는 三十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된바 前回에 繼續하여

一、消費規正、購買力의抑制

一、日滿支를通한物資交流

等 重要懇談을하엿는데 論題는 主로 消費規正問題에 集中되어 左와如한 意見이 開陳되엇다

一、生活必需品의 傳票制는 이미 名古屋、豐橋、神戶等地方에서 實施하여 相當한 成績을 보고잇는데 이를 全國的으로 實施함

一、消費規正을 組織的으로 實施함에는 配給機構의 整備를 時급히…

銃後施設一層强化
厚相、地方長官에重大指示乎

【東京電話同盟】前線의 慰問使로 現地最前線部隊、野戰病院等을 慰問한 吉田厚相은 現地의 實情을 率直히 披露하여 前線將兵의 健在를 報告하고 國內의 物資不足 의 前線에 誇大하게 流布되어 前線將兵의 心境을 傳하고 地方長官會議에서 詳細히 說明하고 …

使節團一行上海에

【南京三十日發同盟】國民使節一行은 多忙한 日程을 無事히 마치고 三十日午後三時 南京을 出發 上海로 向하엿다 …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三十日定例閣議는 …

고다大公에賜謁

【東京電話同盟】히틀러總統의 使臣으로 來訪한 작센·코브르고다大公은 三十日午前十一時 參內 …

히總統에御禮電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

阿部全權大使及各國民使節主催의日支要人招待會(南京서)

九戰區敗敵急追
到處서挾擊殲滅

【漢口三十日同盟】湘湖西岸及洞庭湖東方에 蠢動하는 第九戰區의 敵大部隊는 我軍連日의 猛攻에 完全히 潰滅狀態에 빠졋는데 昨二十九日 天長佳節을 期하여 敢行한 我軍의 猛攻擊은 壯烈을 極하여 山岳地帶에 潰走한 敵에 最後의 打擊을 준 感이 잇다

一、南昌方面

一、九宮山方面

一、岳州方面

鹿角敵陣을猛攻
洞庭湖東岸의敵要地

【洞庭〇〇艦上三十日發同盟】…

航空功勞者表彰

【東京電話同盟】…

魯蘇地區各地서
猛烈한肅淸戰續行

大陸視察敎員等歸還

宮內省恩給令改正

廣陽壩、梁山等
敵防空基地猛爆

刑事實務家會同

【東京電話同盟】…

印度、佛印間에
軍需資材補給協定成立

【시무라(北部印度)二十九日發同盟】…

英佛側서請兵境遇
米、結局大戰에參加?
但、太平洋方面參戰說도擡頭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

瑞西의不安增大
外國과의通謀를嚴戒

【주네브二十九日發同盟】…

英機長驅大空襲
코르네브獨軍基地

【倫敦三十日發同盟】…

伊政府又復動員令

【羅馬二十九日發同盟】…

田中中銀總裁
貸出制限强調

【新京三十日發同盟】…

滿銀總裁更迭

【東京電話同盟】…

北京高幡電臺
百秆以送完成

【北京三十日發同盟】…

東亞敎育大會
七月初旬開催

【東京電話同盟】…

經濟聯盟總會

【東京電話同盟】…

辭令

四月三十日發令

早稻田大學講義錄

校外生募集

躍進日本의第二國民으로서次代의擔當할青少年諸君은即刻우리校外生이되어適正한指導下에實力의涵養에勉勵하기를切望한다。校外敎育의實狀其他의詳細는內容見本으로알도록하라。

中學講義	政治經濟講義	建築講義
商業講義	法律講義	電氣工學講義
高等女學講義	文學講義	中等講義

內容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記入하여申込할것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三二
電話牛込三四五

五月의 모

오월—이달은 천지가 새로운 삶의 활동을 기운차게 [illegible] 하늘아래 신록이 움돋이 [illegible] 시작하는달이다 [illegible]

住宅地의 助成과 並行 惡德家主를 大肅淸

京城府、家主들에게 警告하는 一方 警察과도 連絡하며

家賃紛爭調整委員會設置

오천호 주택지조성계획과 병행해서 경성부에서는 집세때문에 복기고있는 수만 차가인의 정경을 생각하여 부사회과를 중심으로 악덕가주의 응징책에 대하여 그동안여러가지로 연구중이었는데 이지음 다음과 가치 삼개단으로 집세를 함부로 올리는 가주와 또 집세를 올려노코서도 모르는척하는 가주들의 일대숙청을 기하기로 되었다 즉 부내에 있는 아파—트경영자와 및 가주들 일천명의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이들에게 집세를 올리면 안된다는점과 재작년십이월현재이상의 집세를 받고 있는경우에는 즉시 그때에 받든 집세액까지 내릴것을 경고하는 한편 전기 일천명의 『부랙·리스트』를 고교(高橋)경성부윤의 이름으로 부내각 경찰서에 보내가지고 경찰로하여금 각지도에 당하게하여 써 경찰력의 발동을 요망한다 그리고나서 다시 부내각방면위원(方面委員)들을 움직여서 『가임분쟁 조정위원회』를 조직케하여 가주와 차가인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자는것인데 경찰에협력을 구할방침으로 그리고 방면위원에게는 오월사일부로 가주측인 일천명에게도 오월일일부로 각각 통첩을 띄우기로결정하였다고한다

五十萬坪住宅地區 分讓希望者殺到

까다라운規程으로制限方針

경성시내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성부가 일대용단으로 신촌(新村)상도(上道) 금호(金湖)등 세지구오십여만평에 오천호를 수용할만한 주택지를조성하기로 되었다함은 [illegible]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소문이 한번퍼지게되자 부에서 경영하느니만치 갑싸고 살기조흔 주택지일것은 의심업다는 생각에서 분양에대한 내규도 제정되기전부터 희망자가 꼬리를 물고 [illegible] 도시계획과에서는 [illegible] 분양에대한 까다로운세목을 미리 정해가지고 분양제한을 [illegible] 강구하지안홀수가업서 그동안 여기대한연구를 거듭해왔는데 이지음 다음과 가치 대체의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총평수 오십만평에 [illegible]

雜穀輸送活潑

쌀과벼의輸送은激減

철도국선으로 사월중순에 수송된 화물의 돈수를보면 잡곡 파생과일야채등은 작년사월중순보다 어청나게 부럿고 쌀과벼는 드럭히 주럿다 ◀쌀은 육천오백사십이돈으로 작년사월중순보다 [illegible] 주러서 육십사퍼센트나 주른셈이며 ◀벼는 [illegible] ◀잡곡은 [illegible] ◀생과일야채는 [illegible] 기괴한현상이다

스포—츠 뉴—스

全日本蹴球大會 朝鮮서兩팀出場

朝鮮最終豫選·來月十七日부터

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는 來五月十九日부터 各地에서 一齊히 第一回戰을 擧行하고 [illegible]

都市對抗蹴球 豫想投票當籤者

中等蹴球리—그戰에 普成軍이制覇 第二位는中東이獲得

府內中等學校蹴球리—그戰은 四月二十四日부터二十日까지 七日동안 [illegible]

(사진은 우승한 보성군)

全日本蹴球關東 [illegible]

中等籠球리—그戰績

中等野球리—그戰績 京商軍이勝利

培材와中東拳鬪對抗 來月三日京運에서

豐島師範三連覇 全國中等驛前競走에

夏季大學리—그戰

運數조흐면 一萬圓

各方面에서人氣끄는報國債劵五月十三日부터賣出

지까다비最高價 五月一日부터實施

染病三名

主要驛에는"二店"

運送店集約合同方針

本社監查役 方在胤氏永眠

四十歲를一期로昨日永興서

遺書써노코 行方不明

무우처럼假裝하여 米數百叺闇取引

晋州署서某團體幹部等引致

男便旅館에서 妻妾이大亂鬪

德壽小校授業 昨日부터開始

二千兒童、假校舍配定

龍岡郡에痘患

春陽小校學父兄會

京畿中學父兄會

東亞競技大會 多彩한競技種目①

東亞競技大會 籠球蹴球華北代表

今日 曇時時晴

レート化粧料本舖 東京 平尾贊平商店

中部版

六漁組定總

一、十四年度 財産目錄承認

"私立校課稅廢止코 補助金을交付하라"
奉天市聯第三日論戰

【奉天】봉천시련제삼일째되는이십오일은 전국신사입시대제일이므로 시련대표 분회대표 협회회원등 이백여명이 참배한후 오후한시부터 개회하엿는데 이날은 상천의장을교체하여 부의장 하촌(河村)씨가 의장이되어 회의를진행하게된바 …

下級官吏待遇改善과 住宅問題에 熱論
最終日의 奉天市聯의中心論戰

【奉天】봉천시련(市聯)의 최종일인 이십육일 오전아홉시반정각부터 시공서예당에서 개최하고 상천의장(上田議長)의 개회선언으로 의사를진행하게되어 봉천시민에게 가장중대하고 심각한 주택문제로부터 개시하엿는데 강태제이분회대표 서상철(徐相哲)씨로부터 건축자재의 원활한배급 주택난완화를위하여 … 건축자재는 중차대한 것으로 …

工賃一萬千圓으로 漢川港을大修築
오는七月부터工事着手

【漢川】평남평원군 한천어업조합(漢川漁業組合)에서는 …

國民健康週間
平康郡各種行事

【平康】오는이일부터 팔일까지 국민건강주간으로 각종행사를실시할터인데 …

一、國民體位向上의 思想涵養
二、心身鍛鍊
三、環境衛生의改善
四、結核의豫防
五、性病의豫防
六、近視及齒牙의豫防
七、公衆衛生의道德向上
八、保健施設의利用

살은죽기보다힘들다
子息五男妹를데리고生活에지친그어미가 殺人罪를犯하기까지의哀話

【咸南文川】그는 왜 죄의어머니가 되엇나? …

假刑事身元判明
洪原署로押送

經濟展示會盛況
北靑郡、警兩廳主催로

【北靑】…

還都의歡喜
天津市內에充滿

【天津】지나사변의 …

虛川江水電의發電 豫定보다一月遲延
一、二號發電能力은十萬七千키로 電力은咸北道에送電

【咸南文川】허천강수전(虛川江水電)의 제일, 제이호발전소의 발전은 예정보다도 조금느저서 오월초순에야 되게되엇다고한다 허천강수전공사는 삼월말까지 동수(凍水)하고 사월초부터는완전히 발전키로 되엇던바 최근동수가 다소느저지게되어동수는 사월말까지로 한달동안연기되엇스며 따라발전도오월초순경에가야 하게되엇다 이번발전력은제일호발전에 칠만이천오백키로제이호에 삼만사천구백키로합계십만칠천사백키로로 되어잇는데이것은 제일기 개회으로서 총출력의절반박게안된다 …

國民健康週間
楊口官民合力施行

【楊口】비상시국을당한 우리국민들은 총후보국을 힘쓰는한편 건강의필요를 철저히인식시키고저 양구경찰서수천도 다음행사를 오월이일부터 동팔일까지일주일동안 …

五月二日 一般運動日
五月三日 心身鍛鍊及性病豫防
五月四日 環境衛生改善
五月五日 母性乳兒의保健
五月六日 結核豫防
五月七日 消化器傳染病豫防
五月八日 近視及齒牙의豫防及公衆衛生道德向上運動

아직도七六名
京鐵道에天然痘蔓延
工場地帶永登浦서도團束

德源農校開校

【元山】함남도덕원주민의열망의 …

幹線路設計에異議
市場貫通部道路가노파저서商街에큰打擊
江華住民의不平漸高

【江華】얼마전부터 강화군청아 …

咸南廢品回收高
昨年中百十萬餘圓

【咸南文川】모호는 국책의일 …

愛國報國禮拜
楊口敎會서實施

軍旗祭奉祝行事
咸興高槍部隊서擧行

【咸興支社發】함흥부내의 일대(高槍部隊)의 군기제(軍旗祭)의 경축행사는 …

天長節行事
城津에서盛大

【城津】이십구일 천장절을 …

長津面協議會員
七名一齊創氏

【長津】함남장진군장진면 협의회원들은 …

榮譽의志願兵
六培서二名合格

金組理事會앞두고 機構擴充에忙殺
慶北理財課에서管下에通牒

大邱新炭商聯盟
卄八日創立總會開催

內地人入植部隊로 五集合部落을建設
滿拓公司의斡旋으로

【間島支社發】 …

平康蹴球團再結成
大會앞두고猛練習

藥業도配給統制
木浦府內在庫品調査

【木浦】…

六培에假刑事出現

德源農業校 後援會創立

【元山】…

龍纏川堤防 增築工事竣功
總工費는萬九千餘圓

一錢式모하獻金

【雄基】…

雄基金組貸出擴充

煙草販賣高激增

院合增築決議
中央學院父兄會서

經學講話會
開城明倫堂에서

金浦始興等各地의팀 只今부터猛練習
織潤蹴球大會規程詳細發表

延安商工會役員會

農振協議會
盈德郡에서開催

病傷兵을慰安!
安城邑小學兒童들이 溫陽溫泉에서學藝會를開催

【安城】안성읍내 …

春耕 (寫眞)

長篇小說

靑春茂盛 【41】

李泰俊 作
鄭玄雄 畵

花園에오는것 蜂蝶만이아닙니다(六)

득수는 더욱 학교에서 은심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하엿다.

그럴사하게 보아 그런지 은심의 감사생태는 확실이 전과 달러 보이는것이다.

어떤때는 공부시간이 밧갓쪽으로 [illegible]

더구나 은심은 득수와는 말을 아조 아니할 눈치엿다. 무슨말에나 겨우 『그래』『아니』 하는 간단한 대답을 할뿐이엇다. 득수는 최근에 비너본 기억이 업[illegible]

여상울시로는 양측의 편지 맥강 읽을 뒤섞어보니 하나는 뒤에 이놈이 업고, 하나는 뒤에 이놈이 씨엿는데 『고원심』이다. 이가 원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illegible] 득수는 너무 [illegible] 이 눈밖에서 간지기 커지듯 심이 잇슬해진다.

『뭐허러? 뭐허러?』

득수는 그제야 새삼스러이 [illegible] 또 깨처진다.

『뭐허러? 내가 은심을 만나면 대체 어떠한 사심인가? 뭐허러 온건가!』

다. 그뿐 아니라 은심는 득수가가깨이 오면 오래 다른쪽으로 돌아서는것이 현저하다.

한번은 도서실에서 은심이가 만년필을 놓고 나가는것을,

『애? 만년필 네해아니냐?』

하고 깨처주엇으나 은심은 득수는 거들떠보지도 안코, 만년필만 집어가지고 돌아서엇다.

『아ㅡ소애가 왜이리빼거!』 하엿스나 은심은 그말에도 아모런 대꾸가 업시나가버렷다.

『건방진년!』

득수는 사가가 먼저 말을건넨것을 몹시 후회한다.

원선생은 아직도 이를이나잇서야 학교에 나올날이다.

득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길에 책보를 든채 원선생에게 들리엇다.

원선생은 잇지 안엇다. 읽마루에는 넘어가는해가 우리어안젓을수가업다문이열려잇는 방안으로 드려왓다.

반시간이나 기달려도 오지안는다. 책장에서 책을 이것저것 뽑아보면서 다시 반시간을 보내엿스나 원선생은 돌아오지안는다.

득수는 그만 책보를 들엇다. 그러나 그냥 나와버리기가 섭섭하다.

책상으로 와서 펜을 뽑아 잉크를 찍엇다. 종이가 업다. 책상서랍을 뽑아보앗다. 종이쯤보다도 먼저 눈에 뜰리는것이 잇다.

한편으로 가지런히 꼬개노흔

득수는 [illegible] 자리우에 주저안저버렷다. 한편상이 이상이 보이며 영추 떠나지 안는다. 또다른 [illegible] 얼저심이 [illegible] 가늘수가 엇시 피곤하다 [illegible] 밤복에 힘을 수며 다시 어덕을 나려오고말앗다.

달밝은 하늘은 별까지 뜨지 안엇다.

긴 학교 정내를 빼져나와서 되는 길은 다시 고개를 오르게 된다.

고개엔 소나무들이 들을 벌리고 섯다.

『가면 뭘허니?』

하고 길을 막는것갓다.

『죽어버리자!』

득수는 떠서도 캄캄한 눈이나마 감아보다.

은심과 원선생이 가즈런히서서 보아라하는드시 지나간다. 은심은 칙이나 배를드시 멸시하는 교만이다. 원선생도

『네가 네자신을 생각해봐라. 은심과가튼 순진하고 어여뿐처녀를두고 뭘허러 너따위하고 결혼을 하겟니? 네가 너에게 한것은 오직 자선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알어라』

하고 지내치는것갓다. 득수는더듬더듬 소나무에 가기대인다.

『죽어버리자! 고통이 잇시사는보다는……』

득수는 한층을 처다보다.

흐린밤하늘에는 소나무 가지만 큰 배암처럼 꾸불꾸거려빼더나간다.

趣味와娛樂

宣傳과效果

▼…영화회사나 연극단체에서가지 선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아는 모ㄷ 업슬것이다. 여기에는 [illegible] 만한 이유가 잇슬터이고 [illegible]

▼…그것은 이가둘 상업적으로 [illegible] 대부분 [illegible] 라닛말 [illegible]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잇다. [illegible]

▼…여기서 우리는 구레 어 일임이 이러한 선전의 를 흥리고선전을 하는것은 가장 배격할것의 하나가 아닐것이다. 파거에 잇어 보는이 [illegible]

▼…기까운 장래에 조선의 영화계나 연극계는 [illegible] 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무라고 할수잇을것이다.

(丙林)

新映畫評(上)

童心世界의沒理解

☆…高映의『授業料』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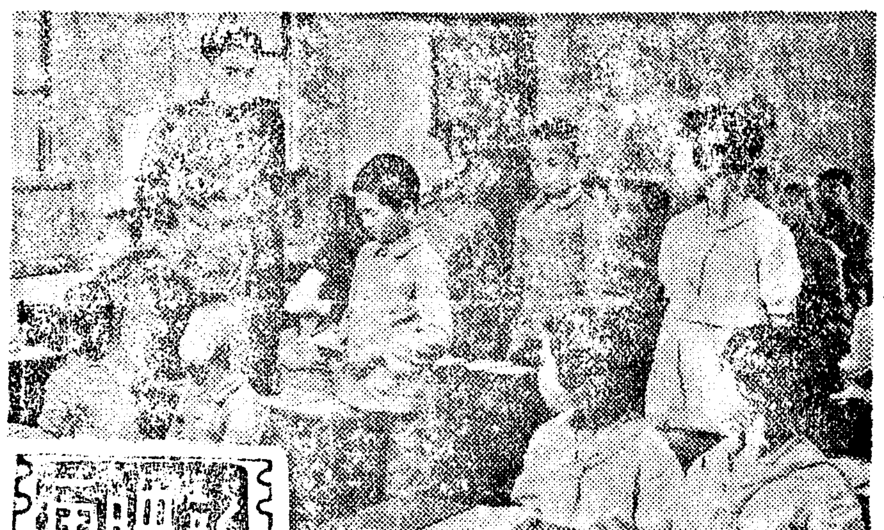
徐光霽

〃수업료〃라는 영화는 처진 라만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안에서만 자라다가 소학교라는데를 들어가게되고 거기서선생의 따스한애정과 지도아래에서교육을 받게되는데

만 보이는것이 이영화의 제작의도라고는 [illegible] 이영와의 스토ㅡ리를 한말로말하면 우영달(禹榮達)이라는 소학교생도가잇고 그의양친은 먼길로 행상을 나갓고

조선의현실

더욱이나 농촌에잇서서 수업료라는 적고도 큰문제때문에 이런학생들의 동심에 커다란 친울을 주게되는것을 그린지이라고 볼수잇는데 붉은 제작자도 이동심세계의 상처를 그냥 빈곤과 처참한환경으로



一志願兵

松竹에서配給

내지에 잇서서의 배급망을잇기위하여 약만개월전에 동경(東京)도와서와영화주식회사대표가 [illegible] 을 세워서 동아흥업(東亞興業)의 최승일(崔承一)씨는 그동안 신흥(新興)과 [illegible] 여러곳과 교섭하여 드디어 송죽(松竹)회사와 계약이 성립으로 서 [illegible] 전국의 송죽 [illegible] 에서 봉절하게되엇다한다

어른사회

예인는 추잡한 [illegible] 가난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우습과 파놀이 엉킨 순진하고도 깨는한 세계를 노렷을것이라고 믿는데 그러치안타면이영화는 근본적인 문제에 서부터 실패를 가저와다고볼수잇다.

그러면 이영화가 얼마나순 지하고도 깨끗한어린이의세계를 그렷스며 그반면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사회와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가혹할만한 사건을 비저낸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

빈곤에도

사람에게 동정받는 처지에잇고 모든사람들이 어린이사회에 가난이잇다면 이는세삭사람이 모두가 [illegible] 가난이 거기에 드러움과 증오가잇을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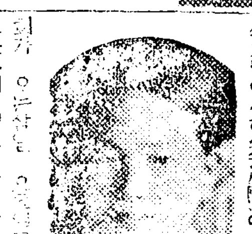
수업료를

못내는 어린학생이하 들이아니고 [illegible] 조선영화의 첨경장상이 [illegible]

李慶熙孃

『피아노獨奏會』

3日梨專講堂에서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하고 다시동교 연구과를나와 방금모교에서 연구를하고잇는 이경이(李慶熙)양의 독주회가 [illegible] (사진은 이경희양)

『黃金座』改名

京城寶塚劇場으로

그전엽수이던 전촌(田村)씨의 이름으로서 지난십이년간 [illegible] 를 맛튼 주인이 [illegible]

具體化되는演劇法案

第七十五議會에提出준비

문부성(文部省)의 연극 영화음악을 개선하는 위원회의 연극부회에서는 금일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수일에 한번씩 매금요일에 회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개선책을 지칙하고 협의하고 잇섯는데 동시에 연극법생에 관해서 [illegible] 칠십오회에 제출할 기세로 본격적준비를 개시하엿다

(一) 연기자 연출사등의 등록제도
(二) 흥행자와 극단의 허가제
(三) 장세상연 지정상연
(四) 고전연극의 시성(施設)
(五) 연극의 영화적 보존등을 제출하려고 협의하고 잇는데 동법안과는 다른 국립극장과 국립적인 연기 연출사의 양성기관설치등에 대하여서도 협의중이라한다

海外短信

喜劇物이大流行

戰時下獨逸의演藝界

★…戰爭映畫도製作開始…★

개전이래 독일국민은 [illegible] 기할 긴장을 계속하고잇는데그 반면에 그들은 긴장의 심리를 늣추기 위해서인지 각지극장으로 밀려들어서 극장마다초만원을 이루고잇다 [illegible]

野談 貰心救夫

崔汝成

하늘의 밝은달은 적막한 공산과 우거진수풀을 흐름이 비치어서 곳곳이 명랑하고 산골군에 흐르는물은 구비마다 소리를처서 고요한하늘을 쓸쓸한밤의 촌락을 깨치는 자연인데……

멀리보이는 거친들은 천지조판 옛런이요 사밋마다달려잇는 이산가의 초만들은 몽롱한 안개속에 평화롭고 한가하여 선경가튼 인세이다.

바로 이때이다.

성낭더 뒤산에 출고 구부러진가결은조차 꼿가지 아름다운 여자하나가 조를 호

러진 머리에 구지레한 옷을입고 마치뒤에서 누구가 쫏차나오는드키 한거름에도 세번씩 좌우와뒤를 도라다보며 가끔가끔 머리를 들어서 낫가치 밝는달을 처다보며 혼자말을한다.

『아이구ㅡ달도 몹시도밝다』

기빠한 넘의 팔짜는 무심한달조차 저러케 밝어서ㅡ』

그는 여기까지만 말을하면서 천방지축 올라오든니 마치 굴묵가치 우거진 솔밧아르로 달려들면서 그의아름다운 자취는 죽죽한 솔밧속으로 사라지고 말앗다.

참ㅡ 알수업는일이다.

이 가치 깁고 적막한밤에 그러케 아름다운 여자가 무슨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밟엇든지?

지금으로부터 삼백구십여년전 명종대왕때 경상도영천군에 이의백이란 사람이 잇섯다.

이사람은 고려 공민왕때명신이던 강영부원군 이인임의 칠대손이다.

그는 여러대을 명문으로 내려오다가 그 아버지 이경해쩍부터 환노가 끈히여서 그 고향인 영천에서농업을 숭상하고 지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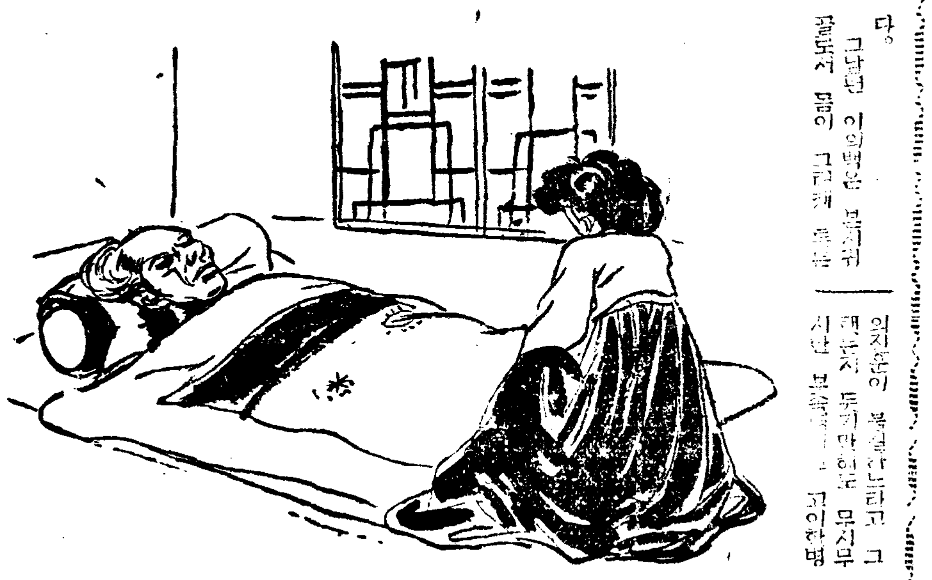
이의백이 재산은 넉넉햇스나 다못 그ㅡ 부모를 일직이 여의고 그 안해 유씨와 가치 조용히 계속하게되엿다.

유씨는 나이가 불과 이십세밧게 아니된 여자이엇지만 그는 인물이라든지 덕행이라든지가 사람중의 뛰어나고 그밧게 모든 여공에게는 이또한 미첩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충찬을 아니바들 쑤가 업슬만치 현숙하엿다

그래서 그는 그남편에게또한 사랑을 밧는것은 말할것도업고 동네 모든사람들한테도 칭송과 귀염을 밧고 지내엇다.

그러나 옛날에 영은 박명하기가 쉬웁고 혼꼿과 견한 풍은 이울기가 쉽다는 말이잇는데 이말은 오직 유씨를 위하여 생긴 말인듯하다.

유씨가 청춘여자로서 부귀문중에 들어와 금몸이고 귀한중 뛰어난 생던은든모든사람의 칭찬을들드니 그것이 조물주의 시기함이되어서 그랫든지 그는 행복을 느끼는 그반면에 박명한 운명이 싹트기시작하엿다.



다.

그남편 이의백은 불의귀 골로서 몹이 그러케 튼튼

의지한이 목숨가는라고 그렌든지 도저히 헐길 무시무시한 보을 [illegible] 고이한병

항것은 여거니와 또한 그러케 약할것도 업섯드니그

이 그몸을 침노하게되엇다.

대개 이병은 어떠한 사

람을 물론하고 한번 못을 리기만하면 아모리 십단장자나 백만장자라도 재산이잇는대로 탕진하고야 결국은 그목까지일어 지고야마는 무서운병이다.

그래서 의백이도 이병을 한번 부뜰려놋코보려는 편주는것은 재산이요 시로 날로 말른는것은 그의 몸이다.

사방으로 사람을 늘어노하여 어디 명의가 잇다하면 천리고 만리고간에 쫏차가서 불러다 뵈이고 갑지고 조타는약은 다 써보앗스나 쇠가튼 병근은 조금도 감하지안코 병에 형세는 조금씩 조금씩 더할뿐이엇다.

유씨는 그 남편의 병이 점점 기러지니 밤이나 나지나 걱정과 근심을 하기에 잠을못자고 밥을 못먹어서 그몸의 야윈 모양은 그남편보다 한칭 더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씨는 자기몸이 어떠한것은 뒤것만치도 생각치안코 오직 일단성심이 그남편의 병을 회춘시키기에 바쁜뿐이엿다.

밤이면은 옷끈을 끄르지

안코 목욕을 하여 약을 대리며 마음을 결하고 다리를 주므르면서 백가지 천가지에 그에근을 아니대는곳이엇시 성심을 다엿다.

유씨가 그가튼 서심으로그 남편의 병을 간호하엿지만 청석가튼병은 소금도 사성업고 오직 의백의 나마지 을시모 남모 재속울할뿐이엇다.

어느날 저녁이다.

의백이가 오사티가 히실히 실 떠러신보듯우에다 깨깟지도 굿안요를 깔고그 와가튼 이울럽고 죽은드시 누엇다가 바른기침을두어번 하드니 힘업시눈을뜨고 냥장박게약 대리는 불이창에가 불그레하게 비친것을 무심이 처다보고잇다가 빨바람이 지날쩍마다 따르르떠는문풍지소리를 듯고 발치에가 안서서 자기다리를 주므르고잇는 그 안해의 얼굴을 처다보면서

『여보 오늘은 날이 어제보다도 쌀쌀하구려』

『문풍지떠는 소리가 바로 겨울바람에 문풍지 떠는소리가튼데』

다리 주무르개만 정신을쓰고잇던유씨는그 남편의하는

소리를 듯고 솜 놀라는드키얼는고개를 돌리면서

『글세요 오늘은 아마 제보다 좀 더 추운가 봐요. 왜 추우신가요?』

그는 이와 가치 말을하면서 얼른 일어나 점은이불하나를 내려서 더덥다.

그리고 그는 박그로 나가서 약이 얼마나 졸앗나 보고 들어와서 또 그남편의 다리를 주므르고잇다.

의백이가 그 안해의 얼굴을 한참 물끄럼이 보고잇다가 한숨 한번을 땅이 꺼질드키 쉬드니

『여보』

힘업시 그안해을 불럿다.

『왜그레서요?』

그는 이러케 대답을 하며 좀이상한드시 그남편의 얼굴을 건너다보고잇다.

『여보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쩍마다 곳큼창이 미여지는것갓소. 나는중한병이 잇는사람이니깐 의례히 몸과 몸이 파리하겟지만 당신이야 멀정한 사람이 얼굴이 저지경이 되니 몸이 얼마나 고단하면 저러하겟소. 나는 당신 얼굴을 볼때마다 지정으로 미안하기 염서서 견딜수가 업소.』

國境에핀사랑

海外珍聞

다 [illegible] 스나 [illegible] 『하ㅡ모ㅡ사ㅡ』 『터ㅡ센트』는 희극 배우 『하이쓰 ㅡ에ㅡ도ㅡ주ㅡ』 수연의 『모성애』 [illegible] 라는영화로 『깃ㅡ츠』선전상을 받은 『국책상 예술상 특이유의』 를 하엿다한다

로랑의 『에ㅡ뿐』은 『놀웨이』 와 『그레ㅡ텐』 국경에서 남쪽에 기까운 『라ㅡ푸ㅡ』 시에서 얼마 떨어진곳 동네와 동네 [illegible] 국경을 넘어 [illegible] 사랑이잇섯다 [illegible] 『쎈』의 청소녀 [illegible] 『쎈』과 소녀와연애 [illegible] 『그레ㅡ텐』 영도안으로 신오여행을 떠낫다한다

講演 國民心身鍛鍊의實際

(五月一日午後七時二〇分)

國民總力聯盟 李京錫

일국가의 흥망과 무관하지 못한것은 국민건강이엇다. 즉 [illegible] 동세국이 [illegible] 국어들 [illegible] 그국민의 기력을 [illegible]

★『그라미』의 자주오는지가 못된것에 뉴욕 밤을 일워주는 오늘『아메리카』의모 시는 언제나 매한가지로 활기를 띄고잇습니다.
★사진은 역시 『뉴ㅡ욕』의 한밤중의 뒷골목입니다. 한편에 늘이 치솟은 고층 건물이 정진한 전기회사의 선전탑입니다.

一婦一人一時一問

家庭婦人과物價問題

徐椿

각가정의 수입은 별로늘지못하고잇는데 불가는 배늘 귀하다. 이러한상에잇서서 수지를 마추어가는데는 오직 가계의 절약이잇을뿐이다 [illegible] 절약이란것은 금전의 [illegible]

五月一日(水)

▲午前六時…[illegible]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
▲正午(東) 時報 天氣 오늘의 [illegible]
▲午後〇時六分 愛國歌謠(레코ㅡ드)
▲同〇時二〇分 뉴ㅡ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生活에規律을세웁시다』 李[illegible]
▲同四時 뉴ㅡ스 職業紹介
▲同六時 月例講話
▲同六時 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二〇分 支那語講座(二)
▲同七時 뉴ㅡ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講演『國民心身鍛鍊의實際』 李京錫
▲同七時四〇分 講演 [illegible] 崔夏永
▲同八時 『野談의밤』 머느리의 기ㅡ 崔夜成
▲同九時 뉴ㅡ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ㅡ스 氣象通報 라디오에모 明
▲同一〇時 [illegible]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金 庭 娘
(四五)

第一放送

[illegible]

二日(木)

▲午前六時 [illegible]
▲同七時 [illegible]
▲正午(東) 時報 오늘의 [illegible]
▲午後〇時五分 [illegible]
▲同七時 뉴ㅡ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八時五五分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뉴ㅡ스解說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ㅡ스 氣象通報 라디오에모 明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金 庭 娘
(四五)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七時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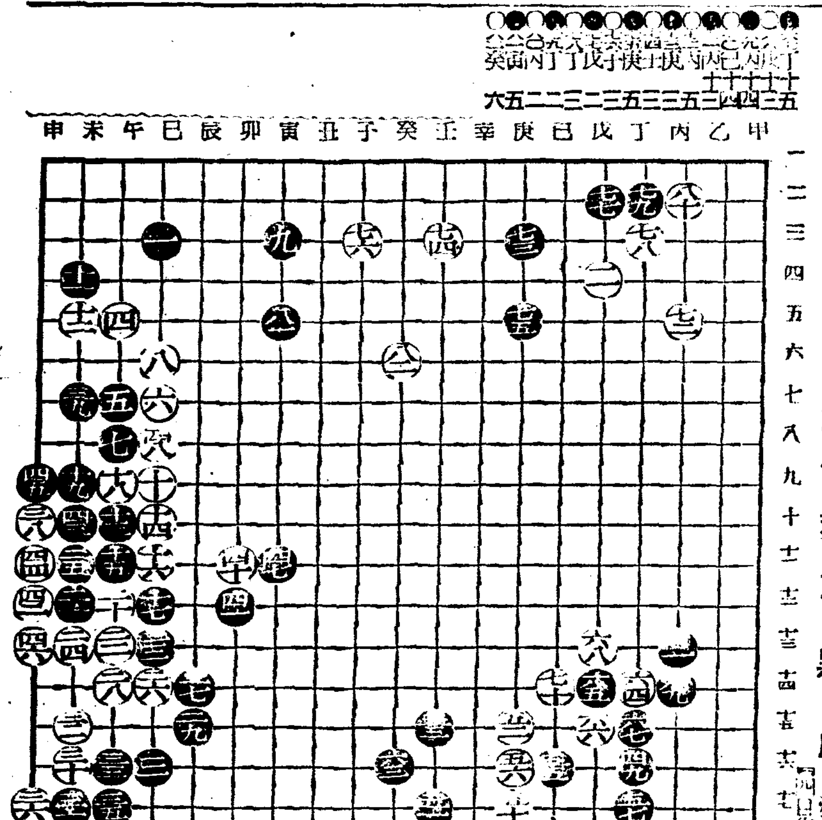
千葉二段昇段戰

白의先鞭「小桂馬」

邊家厚壯한流涎

觀戰記 權秉郁

[illegible]



【6】 白 『二段』千葉茂 · 黑 盧史壽

三町本 京劇

一日ヨリ七日マデ 上映番組ト時間
第一回 十時 第二回 [illegible] 第三回 四時 第四回 七時
新興東京春の巨作 皆様お待兼の後篇
家庭の秘密 後篇(相寄る魂)
眞山くみ子 新田實 逢初夢子 小柴幹治
新興京都大衆篇 愛染河內山
嵐門 南條 國友和歌子 階下席 三〇錢

高協劇團
巡回日程 五月三日 〃 四日 永登浦劇場
柳致眞作 香春傳 八장
朴英鎬作 燈盞불 四場
李泰俊作 어머니 一幕

第一劇場
風雲志士 金玉均 一代記
金玉均 前後篇 六幕十場
四月三十日밤부터
林仙圭 宋影 合作
賀田 朴珍
[illegible]
黄間은白蘭の歌

優美館
狂戀女師匠
天保斬魔劍
事變ニュース
若(わかさま)妻

大陸劇場
4月30日-5月4日上映時間表
授業料 11·00
ニユース 12·25 3·27 6·50
新妻問答 12·38 3·42 7·05
授業料 2·02 5·06 8·24